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령* · 강상경**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활동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9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수준,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화수준, 통합수준, 주변화수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간접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양육효능감, 문화적응, 자녀 교육지원활동, 매개효과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이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3A2099593).

* 주저자, 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 2017-20168@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 사회복지학, 미래전략원 참여연구원 및 교수, skahng@snu.ac.kr

1. 서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 간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선 자유로운 이주가 보편화 되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사회는 1990년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수는 현재까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강만철·이숙자 2017). 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6년 93,786명에서 2010년에는 141,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71,75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법무부 2023).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137,93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0.3%를 차지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 사회적 편견,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활동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다(김도희 2008). 그중에서도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87.2%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 2019).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와 동시에 바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시기와 양육시기가 겹쳐 이중고를 겪는다(김순옥·김현숙 2016).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스스로는 물론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순옥·김현숙 2016).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육효능감은 양육부담감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다(김미정·염동문

2013). 이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을 낮게 자각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질 좋고 바람직한 양육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최형성 2010; Costigan and Koryzma 201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것이며 자녀의 제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증가와 관련하여 문화적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질 때, 한쪽 혹은 양쪽의 본래 문화패턴이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Berry 2008). 다문화사회에서 양육효능감은 특정 문화권 내에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문화적응의 지표로 고려된다(임은의 2020).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다루었다(김도희 2008; 장덕희 외 2015; 전은애 2008; 진형주 2010; 한지은 2007).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유형에 따라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문화적응 유형 및 그 정도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고 문화적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 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친다(전보영 2012). 이민자부모의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강한 부모역할효능감을 준다(Costigan and Koryzma 2011).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과 관련하여 자녀교육지원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령기에 들어선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송미경 외 2007; 이채원 2015).

교육지원활동이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고 수행하는 실제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학부모의 교육지원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

이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이끌어낸다(양연숙·권정임 2010).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녀교육과 양육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전홍주 외 2008). 이러한 교육지원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낮은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진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개인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어실력의 부족과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기대를 교육지원활동으로 연계하지 못한다(김유진·오성배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교육과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문화적으로 상충되는 교육방식과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박순용·오덕렬 2012).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 및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증가하는 반면 분리, 주변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원 및 사회성지도가 감소하였다(김만호 2018)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자녀의 교육지원활동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이끌어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양연숙·권정임 2010).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주로 교육지원활동을 가정 중심의 교육지원과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하위변인을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참여도”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여 교육지원활동 중에서 어떤 요인의 매개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데 더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높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교육지원활동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응 유형이 어머니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확

인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대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문화가정은 정착기에 들어섰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초기적응의 어려움보다는 자녀양육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에 학령기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나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적응의 어려움보다는 가족생활주기와 자녀의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초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를 거쳐 자녀교육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생활주기별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데이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 교육지원활동,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2. 선행연구 고찰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가진 인지적 특성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긍정적인 성장,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여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희정 2014; Bandura et al, 2001; Coleman 1998). 양육효능감은 반두라(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나온 개념적인 내용을 자녀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다(Coleman 1998).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임무를 잘 해결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개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Bandura 2010). 실제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양육현장에 적용한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 훈육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며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판단과 믿음이다(Johnston and Mash 1989; Lee and Jeon 2021).

어머니의 여러 심리적 요인 중 양육의 효율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극복기제 등에 대한 관심이 조명되면서 다문화가정 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주변 환경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한다(김도희 2008). 높은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Lee and Jeon 2021). 또한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이는 대인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정·염동문 2013).

종합해볼 때 부모역할에 대한 의지와 능력인 양육효능감은 자신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인식이며 나아가 일관성 있는 양육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특히 자녀 양육과정에서 일반가정 부모들보다 더 많고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사회적,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스스로 통제하여 양육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임파워먼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문화적응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변화이다. 이 현상은 사회적 구조, 생활의 변화, 개인의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김혜은 2012). 문화적응의 개념은 Redfield et al.(193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문화적응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두 집단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느 한 집단 또는 두 집단 모두의 문화패턴이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Redfield et al. 1936).

초기의 문화적응 정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였다. 그러나 Berry(1997)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유일한 유형이 아니며, 한 집단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만이 아닐뿐더러 각 집단의 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자극하며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난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유형과 관련하여 베리(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응을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여 <표 1>과 같은 문화적응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차원2 \ 차원1		자신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주류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아니다	분리 (sepa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자료: Berry 1997.

개인이 문화접촉으로 변화를 겪을 시에 2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접하게 된다. 첫째는 문화유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참여에 관한 것으로 주류사회에 접촉, 참여하면서 다른 집단에 포함되거나 그들 사이에서 체류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이

다(Berry 1997). 즉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이주문화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추구한다면 동화유형이고,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통합유형으로 정의된다. 또한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에만 가치를 두고 주류문화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참여도 피하려 한다면 분리유형, 전통문화유지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고 새로운 문화에 참여하는데도 소극적이고 이주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면 주변화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Berry(200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합유형에 속하는 자들이 주변화유형을 취하는 자들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문화적응에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와 분리는 적응의 중간 정도에 달성한다. 즉 모국문화와 주류문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참여하는 통합유형이 가장 나은 적응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을 토대로 한 Ward와 Deuba(1999)의 연구에서 역시 통합유형을 취하는 이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겪고, 동화유형을 띠는 이주민들은 사회적 어려움을 적게 겪는 것으로 밝혀냈다.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게 유지하며 통합적 전략을 취하는 청소년들의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우호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Choi et al, 2016). 그러나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Luijters et al, 2006). 주변화유형과 관련하여 Leong과 Leung(2004)은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주변화 유형에 속할 경우 모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모국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주변화 전략을 취하는 개인이 다른 유형보다 심리사회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며, 어느 문화에도 소속되지 않거나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발전과 삶의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A. Meca et al, 2017). 즉 주변화유형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주류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모국사회에 재적응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화적응을 함에 있어서 모든 집단과 개인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이 어떤 유형의 문화적응을 수행하느냐는 모국문화와 주류문화의 충돌과 갈등을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중문화에 잘

적응하며 본국문화와도 강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가지며 주류문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라틴계 이민자 부모들이 자기주도성이 높고 양육참여에 적극적이며 건강한 양육방식을 취한다(Williams et al, 2017)는 연구결과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전략이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한국사회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지지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은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결정된 문화적응 유형 또한 그들의 생활과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준다. 앞서 요약하였듯이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지원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한 문화적응 유형이 그들의 양육효능감을 어떻게 결정하고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교육지원활동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란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 부모와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조력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송윤혜 2011).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나 학업에 대한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문은식·김충희 2003; 신지연 외 2016; 최인재·오수연 2010).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학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심미옥(2003)은 교육 지원활동을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활동, 심리적 지원 관련 교육 지원활동, 학교활동 관련 교육 지원활동, 학교 밖 교육을 통한 교육 지원활동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송윤혜(2011)의 연구에서 교육 지원활동을 측정하는 척도는 총 30가지로 3가지 하위요인인 가정중심 교육 지원활동, 학교중심 교육 지원활동, 심리적 교육 지원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전홍

주 외(2008)는 자녀교육지원을 자녀교육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실제적 지원으로 범주화하였고 실제적 지원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을 크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지원과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교육체계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여 자녀의 학업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김승희 2011). 그밖에도 언어장벽과 문화적 부적응으로 하여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류진아 2011; 이은아 2013).

그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 노릇에 대한 걱정을 일찍부터 한다(이은아 2013). 특히나 학벌과 성적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은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하는 부분이기에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상,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한국엄마보다 훨씬 더 걱정이 많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 교육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분과 학교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하여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전홍주 외 2008), 자녀의 학업과 학교활동 참여에 큰 어려움과 부담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녀 학교생활 지원을 교육지원활동의 하위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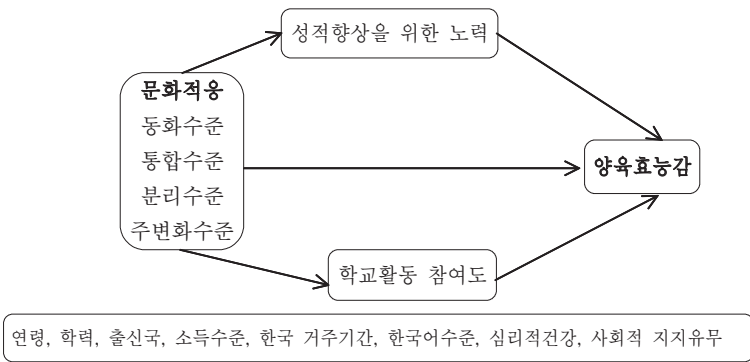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1기 패널의 9차년도(2019) 학부모용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개년에 걸쳐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고 동일한 대상을 후기청소년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출, 사망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와 결측값을 제외한 후 총 1,058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9차 조사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에 자녀 연령, 자녀 학년과 같은

자녀관련 변인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0명(0%), 30대는 21명(2.0%), 40대는 572명(54.1%), 50대는 454명(42.9%), 60대 이상은 11명(1.0%)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110명(10.4%), 고등학교 졸업이 502명(47.4%), 2~3년제 대학 졸업은 277명(26.2%), 4년제 대학은 164명(15.5%), 대학원은 5명(0.5%)으로 나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수(명)	백분율(%)	
연령	20~29세	0	0	
	30~39세	21	2.0	
	40~49세	572	54.1	
	50~59세	454	42.9	
	60세 이상	11	1.0	
학력	중졸 이하	110	10.4	
	고졸	502	47.4	
	2~3년제 대학	277	26.2	
	4년제 대학	164	15.5	
	대학원	5	0.5	
출신국	중국	266	25.1	
	베트남	20	1.9	
	필리핀	279	26.4	
	일본	393	37.1	
	태국	45	4.3	
	기타	55	5.2	
지원경험 유무	있음	199	18.8	
	없음	859	81.2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소득수준(로그)	5.57	0.45	3.91	7.09
거주기간(로그)	2.99	0.17	2.08	3.47
한국어 수준	3.10	0.52	1.00	4.00
심리적 건강	4.23	0.73	1.00	5.00

타났다. 출신국은 중국이 266명(25.1%), 베트남은 20명(1.9%), 필리핀은 279명(26.4%), 일본은 393명(37.1%), 태국은 45명(4.3%), 기타 나라가 55명(5.2%)이다. 이들 중 199명(18.8%)는 국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859명(81.2%)은 정책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은 평균 5.57(SD=0.45)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의 경우 평균 2.99(SD=0.17)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평균 3.10(SD=0.52)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건강은 평균 4.23(SD=0.73)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양육효능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의 학부모 데이터에서는 신숙재와 정문자(1997)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9개 항목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분석하였다. 척도의 구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각 문항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고 평균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양육효능감을 묻는 각 질문에 대한 9개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설명한다. 구성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3이다.

(2)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rry(2001)가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노하나(2007)가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 학부모 데이터에서는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4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유형별 문항 3개씩 총 1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의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 3개 문항의 평균을 그 유형의 문화적응 점수로 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별 문화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유형의 전체

신뢰도는 .646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동화 .855, 통합 .750, 분리 .800, 주변화 .875로 확인되었다.

(3) 자녀 교육지원활동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이며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 하는 노력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 참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척도는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하는 노력을 묻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문항으로는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함’,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봄’, ‘학원에 보냄’, ‘개인과외를 시킴’,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칩’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모두 더한 합으로 문항수를 나누어 평균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759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을 4개 문항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담임교사 면담’, ‘학부모 회의 참석’, ‘학부모 교육 참석’, ‘진로진학 상담’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을 모두 더한 합으로 문항수를 나눠 평균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숫자가 클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57이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지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출신국, 소득수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심리적 건강, 사회적지지 유무가 있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식은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내용
독립변수	동화유형 통합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	3개문항의 평균. 5점척도
종속변수	양육효능감	9개 양육효능감 측정 문항의 평균. 5점척도
매개변수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0~5: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함
	자녀 학교활동 참여도	0~4: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수준 높음
통제변수	연령	연속변수(26~65세)
	학력	1='중졸이하', 2='고졸', 3='2-3년제 대학', 4='4년제 대학', 5='대학원 졸업'
	출신국가	'중국'을 기준변수로 5개 더미변수 형성
	소득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자연로그 취한 값
	한국 거주기간	한국 거주기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한국어 수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네 영역의 평균. 5점척도
	심리적 건강	6개 심리적 건강 측정 문항의 평균
	사회적 지지 유무	1='유', 0='무', 더미처리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 교육지원활동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한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넷째,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교육지원활동의 하위변인인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병렬 이중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였고 검증 시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및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화는 평균 3.01(SD=.77), 통합은 평균 3.53(SD=.66), 분리는 평균 3.17(SD=.76), 주변화는 평균 32.21(SD=.82),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은 평균 32.19(SD=.63), 학교활동 참여도는 평균 3.54(SD=.53)로 나타났다. 변수의 왜도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와 흡사하다고 여기기에(Kline 2005) 주요 변인들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

표 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인	M	SD	왜도	첨도
동화	3.01	.77	.07	.21
통합	3.53	.66	-.17	.43
분리	3.17	.76	-.29	.43
주변화	2.21	.82	.23	-.50
성적향상	2.19	.63	.28	-.24
학교생활	1.47	.54	1.15	1.01
양육효능감	3.54	.53	-.08	.81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 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계수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동화유형은 통합유형($r=.417, p<.001$),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r=.110, p<.001$),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r=.167, p<.001$), 양육효능감($r=.21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리유형($r=-.209,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합유형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r=.152, p<.001$),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r=.225, p<.001$), 양육효능감($r=.39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변화유형($r=-.265,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분리유형은 주변화유형($r=.224, p<.001$),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r=.066,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화유형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r=-.120, p<.001$)과 양육효능감($r=-.242, p<.001$)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두 개의 매개변인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r=.382, p<.001$)를 보여주었고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은 양육효능감($r=.222,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 참여는 양육효능감($r=.230,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동화	1						
통합	.417***	1					
분리	-.209***	.001	1				
주변화	.043	-.265***	.224***	1			
성적향상위한노력	.110***	.152***	.066*	-.046	1		
학교생활참여도	.167***	.225***	-.008	-.120***	.382***	1	
양육효능감	.210***	.399***	-.013	-.242***	.222***	.230***	1

* $p<.05$, ** $p<.01$, *** $p<.001$

2)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각 유형별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0.829, p<.001$). 수정된 R^2 은 .231로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양육효능감을 23.1%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화($\beta=.092, p<.001$)와 통합($\beta=.257, p<.001$)은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주변화($\beta=-.12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나타냈다. 분리수준과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지원활동의 하위변수 2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본 모형의 수정된 R^2 은 .258로서 모형 1보다 증가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1.403, p<.001$). 이는 교육지원활동의 변수들의 투입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독립변수 중 동화수준($\beta=.075, p<.05$), 통합수준($\beta=.231, p<.001$), 주변화수준($\beta=-.119, p<.001$)이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동화유형과 통합유형, 주변화유형의 β 값은 모형 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beta=.143, p<.001$)과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beta=.11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두 개의 매개변수가 동화수준과 양육효능감을 정적으로, 통합수준과 양육효능감을 정적으로, 주변화수준과 양육효능감을 부적적으로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표 6.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관계

변수명	모형 1(독립→종속)		모형 2(독립&매개→종속)	
	베타	t	베타	t
(상수)		5.947***		5.562***
연령	.015	.463	.022	.710
학력	.057	1.946	.031	1.064
베트남	.000	-.010	-.004	-.150
필리핀	.086	2.156*	.113	2.867***
일본	-.044	-1.090	-.035	-.882
태국	.012	.392	.020	.693
기타나라	.001	.041	.015	.488
소득수준	.062	2.158*	.045	1.563
거주기간	-.078	-2.537*	-.074	-2.442*

한국어 수준	.118	3.653***	.116	3.637***
심리적 건강	.137	4.631***	.143	4.910***
지원경험유무	.032	1.150	.003	.109
동화유형	.092	2.811***	.075	2.319*
통합유형	.257	7.826***	.231	7.106***
분리유형	.054	1.833	.039	1.360
주변화유형	-.129	-4.109***	-.119	-3.846***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143	3.981***
학교활동 참여도			.118	3.188***
F	20.829***		21.403***	
R2	.243(.231)		.271(.258)	

*p<.05, **p<.01, ***p<.001

3)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중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화유형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동화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성적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임을 알 수 있다. 총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280, LLCI=.0158, ULCI=.0410). 동화→성적향상→양육효능감과 동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들의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동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t	p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1451	.0208	6.9832	.0000
직접효과	동화→양육효능감	.1171	.0205	5.7214	.0000

		Effect	SE	LLCI	ULCI
간접효과	동화→성적향상→양육효능감	.0112	.0041	.0038	.0198
	동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	.0168	.0049	.0081	.0272
	총 간접효과	.0280	.0064	.0158	.0410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유형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2개 매개변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합 유형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통합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성적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활동에도 참여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임을 알 수 있다. 총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ffect=.0340, LLCI=.0202, ULCI=.0493).

표 8. 통합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t	p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3218	.0227	14.1592	.0000
직접효과	통합→양육효능감	.2878	.0229	12.5579	.0000
		Effect	SE	LLCI	ULCI
간접효과	통합→성적향상→양육효능감	.0158	.0050	.0070	.0264
	통합→학교활동→양육효능감	.0182	.0063	.0065	.0311
	총 간접효과	.0340	.0074	.0203	.0493

다음으로 분리유형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결과는 <표 9>과 같다. 분리유형은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간접효과 경로의 매개모형 또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였기에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분리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t	p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0093	.0214	-.4361	.6628
직접효과	분리→양육효능감	-.0156	.0206	-.7584	.4484
		Effect	SE	LLCI	ULCI
간접효과	분리→성적향상→양육효능감	.0073	.0036	.0005	.0147
	분리→학교활동→양육효능감	-.0010	.0036	-.0081	.0065
	총 간접효과	.0063	.0059	-.0051	.0180

마지막으로 주변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교육지원활동이 간접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주변화유형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Effect=-.0112, LLCI=-.0201, ULCI=-.0043). 주변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주변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t	p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1573	.0194	-8.118	.0000
직접효과	주변화→양육효능감	-.1415	.0189	-7.492	.0000
		Effect	SE	LLCI	ULCI
간접효과	주변화→성적향상→양육효능감	-.0046	.0037	-.0124	.0020
	주변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	-.0112	.0041	-.0201	-.0043
	총 간접효과	-.0159	.0061	-.0286	-.0044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매개 변인의 개별 간접효과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수준과 통합수준은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진형주(2010)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활동에 적극적이며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지나 2023)와 통합적 태도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모인지능력과 부모신념도 높으며 따라서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인다는 결과(전보영 2012)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주변화수준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문화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주문화의 적응수준도 낮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에서 문화적 이질감의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한 안정감의 결여 등으로 인해 부모역할 효능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녀 교육지원활동은 동화수준, 통합수준, 주변화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동화수준과 통합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학업지원과 사회성 지도가 증가한다(김만호 2018)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높은 통합수준은 자녀의 교육지원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효과가 양육효능감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활동 참여가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며(이은경 2016),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주변화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화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의 진로지원행

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임은의·박미현 2021)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적게 할 수록 부모효능감이 낮다는 선행연구(양연숙·권정임 2010)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활동이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응 유형 중 분리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모국에서 형성된 교육관과 학교교육에 대한 철학이 교육지원활동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리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고유문화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이 확립되었기에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고 그들만의 양육철학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 어머니처럼 경쟁적인 교육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박순용·오덕렬 2012).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강화하여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문화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하여야 한다. 고유문화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착 초기에 한국문화에 스며들기를 원하는 일방적 동화주의적 정책이 아닌 결혼 이전부터 초기정착, 장기거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한 문화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 과정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체적 노력과 가족 차원의 변화,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함께 제공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교육제도와 교육문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역할을 키워야 하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통합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령

기 자녀의 연령별,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지원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문화, 학교환경과 입시제도 등과 같은 정보가 부족하기에 이와 관련한 교육 진행, 학부모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임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응 유형이 직접적으로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비해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해 문화적응, 교육지원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과 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자녀 교육지원 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을 파악한 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적응 유형별로 자녀교육지원 정도와 양육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수준별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고 나아가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려면 문화적응 유형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녀 교육지원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과 자녀 교육지원활동을 함께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이를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지원활동과 양육효능감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상의 요인들을 함께 연구하여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과 교육지원활동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때문에 결과를 전체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자녀의 연령의 변화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지원의 변화와 양육효능감의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을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지원활동을 보다 폭넓고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중 일본 출신 여성이 가장 많으며 이는 기술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전국에서 표집된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 자료를 2011년부터 추적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출신국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를 균일하게 조사하여 출신국가별 문화적응 유형과 교육지원활동,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신: 강상경(서울대학교 미래전략원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skahng@snu.ac.kr)

Correspondence: Sang Kyoung Kahng(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kahng@snu.ac.kr)

2023.07.28 접수, 2023.08.21 심사, 2023.11.22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만철·이숙자,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복지상담교육연구, 6(2), 83-108.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만호, 2018,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염동문, 201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社會科學研究, 29(2), 1-21.

- 김순옥·김현숙, 2016,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62-473.
- 김승희, 2011,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33.
- 김유진·오성배, 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135-160.
- 김혜은, 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 김희정, 2014,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CBT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취학관련 경험과 대처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12(2), 599-620.
- 문은식·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순용·오덕렬, 2012, 취학연령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문화적응연구-필리핀인 및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5(1), 177-197.
- 박지나, 2023, 아시아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부모효능감 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활동의 구조관계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2(2), 51-100.
- 법무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이민정보과.
- 송미경 외,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송윤혜, 2011,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18(2), 183-202.
- 신숙재·정문자,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 외, 2016, 부모의 지원, 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변인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3), 497-520.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양연숙·권정임, 2010, 영재학부모의 교육신념과 교육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9(3), 163-181.
- 이은경,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자본과 부모역할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27-48.
- 이은아, 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한국여성학, 29(3), 115-146.

- 이재원, 2015, 사회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1), 239-261.
- 임은의,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진로지원행동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0(11), 313-323.
- 임은의·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5(2), 136-156.
- 장덕희 외, 201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문화적응과 사회자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0(4), 631-649.
- 전보영,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부모역할 효능감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4(2), 15-31.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홍주 외,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진형주,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오수연, 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부모지원,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3), 95-113.
- 최형성,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7), 1-13.
- 통계청,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실태조사 분석.
- 한지은,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et al.,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ndura, A., 2010, Self-efficacy.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 2008, Globalisation and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4), 328-336.
- Choi, Y. et al., 2016, Advancing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for adolescents of Asian immigrants: Person-oriented analysis of acculturation strategy among Korean Ameri-

- can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 1380-1395.
- Coleman, P. K. and K. H. Karraker,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lleen W. and Rana-Deuba Arzu,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Sage Journals*, 30(4), 422-442.
- Costigan, C. L. and C. M. Koryzma, 2011,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nese parents: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83.
- Johnston, C. and E. J. Mash,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Lee, I. S. and J. H. Jeon, 2021, Influence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acculturation stress on parent-child relations among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7(2), 171.
- Leong, F. T. and Leung, 2004, Academic careers in Asia: A 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2), 346-357.
- Luijters, K. et al., 2006,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ethnic minority workers and the role of intercultural personality trai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4), 561-575.
- Meca, A. et al., 2017, Exploring adaptive acculturation approaches among undocumented Latins: A test of Berry's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5(8), 1115-01140.
- Redfield, R. et al.,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Williams, L. R. et al., 2017, Acculturation profil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mong immigrant Latino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9(4), 452-469.

The Effec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on Parenting Efficacy :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Ling Li* · Sang Kyoung Kahng**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accultu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ffects child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and how these activities affect parenting efficacy. To achieve this, the ninth wave of data from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was utilized, and the PROCESS macro program developed by Hayes (2013) was employ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parenting efficacy, while higher levels of marginalization were linked to lower parenting efficacy. Furthermore, the study foun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assimil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levels on parenting efficacy through support activities for children's education, thus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I discuss strategies to improve parenting efficac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_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Efficacy, Acculturation,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Mediating Effect

* First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Master, 2017-20168@snu.ac.kr

** Correspondence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skahng@snu.ac.kr